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전개

무주군,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탄소포인트제 가입·에너지 절약 적극 홍보

무주군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60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060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관내 업체를 비롯한 사업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탄소포인트제 가입 독려와 ▲에너지 절약 실천(실내 적정온도 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유지/컴퓨터 절전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음/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TV 사용시간 줄이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 사용하기 등) 분위기를 조성한다.



무주군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60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무주군은 지난 11일부터 가정과 상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온실가스 진단 및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11일과 16일 무주 장남에는 반딧불시장에서 탄소포인트제 관련 홍보물을 배포해 관심을 모았다.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단독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택, 학교, 병원 등지에는 감축률에 따라 최

대 2만 포인트(1포인트 당 최대 2원)를 지급하며, 가입 월 사용량과 과거 2년간의 같은 월 사용량을 비교해서 감축률에 따라 별도의 포인트를 지급(연 2회)한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이지영 팀장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후안심도시 무주'를 조성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전라북도 저탄소생활 실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최우수상을 목표로 에너지 실천운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취약계층·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진안군, 전춘성 군수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진안군은 오는 9월 31일까지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연료비를 지원하는 '2021년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전춘성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한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앞서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 2억5000여만원을 세우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현재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가구이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거나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받

급 받은 자,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지급 받는 자 등 타 에너지바우처나 다른 법률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9만원으로 이용권은 등유 및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신불카드)를 발급할 예정으로, 오는 10월부터 12월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연료비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진안군청 농촌활력과(063-430-8052)에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농어촌 주민들은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보다 비싼 연료(LPG, 등유 등)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연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가구에 에너지 지원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불균형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에 숨어있는 대표 맛 집 발굴한다

무주군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숨어있는 맛 집을 개발하기 위한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무주군은 내·외부 고객이 선호하고 지역의 숨어있는 다채로운 맛을 찾아 군의 대표 맛 집으로 홍보하기 위해 2021년 무주 데(The) 맛 집 선정 및 홍보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주로 식사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총 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행정처분 업소나 세금 체납자는 제외)

이 사업의 평가는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전문 용역사를 통한 심사에 착수하며, 2번에 걸쳐(1차 공식 현장심사, 2차 블라인드 현장심사) 평가를 진행한다. 오는 8월 중 맛 집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무주군에서 인증하는 맛 집 인증 간판 부착, 업소 메뉴·홍보·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컨설팅 추진, 대표 맛 집 SNS 홍보, 방송·온라인 홍보, 무주군 제작 관광홍보물 삽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무주의 숨어 있는 맛 집 발굴로 '더(The) 맛 집 투어' 등 특수목적 관광 활성화와 함께 지역 음식문화를 새롭게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 강화

장수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단계별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단속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적인 방치시설 정비유도해 우선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펼친다. 이후 집중감시 및 단속 기간인 8월 말까지 오염 우려 지역

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등 관련 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

특별 감시·단속 기간에 고의나 상습적으로 오염물질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소각 등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장은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 집중호우로 방치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복구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편입희망자모집

진안군은 젊고 우수한 농업종사 희망자를 육성·발굴하기 위한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를 오는 7월 5일까지 모집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2022년 후계농업인 선정 예정자 포함)되어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중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급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이다. 다만 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가족 중 진안군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특히 올해부터 대상자가 농업계통(농업계고등학교, 농업대학교 등)의 전공자로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희망자는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영농계획서, 영농승계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작성해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학생 대상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

진안군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군은 매년 관내 유, 초, 중, 고 아동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28개 학교 중 14개 학교(유치원 1, 초등학교 6, 중학교 4)가 신청할 만큼 인기가 많은 교육이다.

관내 코로나19 발생을의 저하와 예방주사 접종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5월 백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교육을 재개해 운영 중이다.

교육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9월 8일까지 금연전문 감사가 학교를 다니며 찾아가는 흡연예방 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흡연 청소년을 위해 금연상담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일대일 금연상담과 프로그램 운영을 하며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군민 대상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나서

7월까지 사회적경제 기본교육·경·세·통스터디 모임 추진

진안군은 건강한 진안공동체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진안군사회적경제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발맞춰 진안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한명재) 주관으로 오는 7월까지 '2021년 사회적경제 기본교육'과 '2021 경·세·통(사회적경제로 세상을 소통하다)스터디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교육은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먼저, '2021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은 오는 7월 8일까지 마이산에코타운 세미나실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갖고 있다.

강의 주제는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농업과 농촌,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 ▲농촌의 공유경제 등을 사회·경제적, 환경·문화적 등이다.

매회 참여 인원은 20여명이며, 선착순 모집한다.

오는 7월 8일에는 교육생들과 함께 타시·군 우수사례인 전남 영광에 있는 여민동락공동체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2021 경·세·통'은 사회적경제 모닝스터디 활동으로 7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사회적경제공유센터(마이산북부진안마을한정식2층)에서 진행 중이다.

특히 '이탈리아와 독일협동조합 100년 성공비결'을 교재로 발제·토론하며 진안군의 맞춤형 사회적경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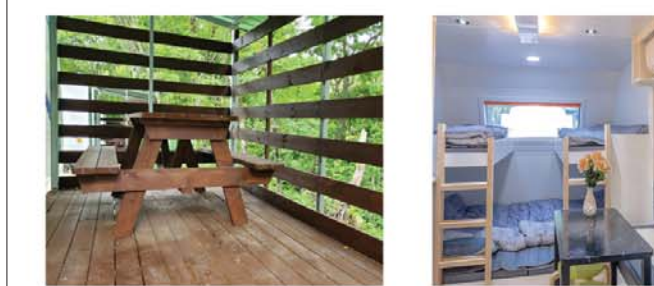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 활동은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진안 군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전화(010-3364-1090) 또는 이메일(jacoplabb@daum.net)로 참여 신청 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